

# 원정서도 좋은 기세 ... 연변팀 불산남사팀과 무승부

■ 2-2, 비겼지만 승리할 수도 있었던 경기

연변팀이 원정에서 승점 1점을 획득했다. 기대했던 시즌 첫 원정승은 이뤄졌지만 연변팀은 원정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었다.

6월 14일 오후 7시 30분에 불산남해체육중심경기장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불산남사팀(이하 '불산팀')과 2대2로 손잡았다.

경기전 소식공개회에서 "홈 5연승의 기운을 받아 원정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힌 이기형 감독은 4-4-2 전형을 가동해 리날, 서계조, 왕봉, 리세빈으로 수비선을 구축하고 리홍, 도밍구스, 박세호, 김태연으로 중원을 구성했으며 황진비와 포부스가 플라냥에 나섰다. 키퍼 장갑은 구가호가 썼다. 선발 명단에서 눈에 띄는 건 오랜만에 이름을 올린 리달의 출전이였다.

올 시즌 지금까지 원정에서 승리의 맛을 못본 연변팀과 현재 순위 14위로 강등권 직전인 불산팀의 대결은 두 팀 모두에 의미가 깊었다.

불산팀은 홈장 우세를 등에 업고 경기 시작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에 맞서 연변팀은 라인을 맞춰가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경기 3분 만에 박세호의 유효 슈팅으로 첫 공격포인트를 쌓은 연변팀은 재빠르게 경기에 몰입했다.

7분경에는 불산팀이 첫 코너킥을 얻어 리박문이 헤딩포로 련겔했으나 구가호가 몸을 날려 쳐냈다.

그 뒤로 연변팀은 련속 두번의 코너킥을 쟁취하며 불산팀의 문전에서 기회를 엿봤다. 경기 시작 15분도 안돼 연변팀은 4회의 코너킥을 기록했다.

초반에 유효 슈팅을 서로 주고받던 두 팀은 차츰 공 점유율을 높여가며 중원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경기 흐름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듯 싶었던 20분에 불산팀이 연변팀의 수비 실수를 역습으로 전환해 선제골로 마무리할 줄이야 ...

홈에서 첫 골을 먼저 가져간 불산팀은 기세가 올랐고 연변팀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포인트가 필요했다.

24분경 김태연이 중앙으로 깔끔한 패스를 찔러냈다. 앞으로 쇄도하던 황진비가 공을 받는 데까지는 이어졌으나 상대 키퍼가 미리 앞으로 나오며 슈팅으로 살리지 못했다.

불산팀의 숨막히는 대인방어가 연변팀의 발길을 잡으며 연변팀은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깰 방법이 시급했고 부단히 패스를 시도하며 그 틈을 노리던 중 34분경 상대의 페널티지역 근처에서 프리킥을 얻었다.

불산팀이 수비벽을 세우며 분주한 가운데 키퍼로 나선 리홍이 발끝으로 감아찬 공이 유



▲ 선제골을 내주고 뒤처지던 경기 34분경에 리홍이 발끝으로 감아찬 공이 유려한 호선을 그리며 동점골을 만들었다.

려한 호선을 그리며 불산팀의 골망을 시원하게 갈랐다.

선제골을 내주고 15분도 안되어 연변팀은 인츰 동점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경기가 불꽃 튀기던 41분경에 극적인 순간이 연달아 펼쳐졌다. 불산팀이 연변팀 문전에서 혼전중 슈팅 기회를 얻었고 공이 수비 지월에 나선 포부스의 몸에 맞더니 방향이 틀어졌다. 때마침 문전에 침투해있던 불산팀의 리박문이 추가슛으로 연변팀 골문을 명중했다.

이때 주심은 머리를 굴적어지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처음에는 불산팀의 유효골로 인정하나 싶더니 인츰 이 득점을 취소했고 포부스의 '순반칙'을 문제 삼으면서 페널티킥을 선언했던 것이다.

득점인가 싶던 순간에 취소되고 그러다 다시 페널티킥을 얻은 불산팀은 주자로 나선 니 플라스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전반전 경기 막판에 제자 2대 1로 앞설 수 있었다.

웃지 못할 '상황극'이 펼쳐지며 전반전은 추가 시간이 6분이나 되었고 연변팀은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은 채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하지만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연변팀은 모든 가능성을 후반전에 남겨두었다.

전력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한 연변팀은 54분경에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리달을 빼고 천장걸을 투입한 연변팀은 위치를 조절하며 반격에 힘을 실었다.

이번에도 감독의 교체술이 적중했다. 56분에 연변팀의 두번째 동점골이 나왔던 것이다. 포부스, 황진비, 도밍구스의 빛나는 련계가 도밍구스의 시즌 첫 골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이 득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황진비의 몸으로 받아넘긴 페스도 절묘했고 도밍구스에 대한 대인 수비를 놓쳐버린 상대의 실수를 포착해 도밍구스에게 적시적인 패스를 찔러준 포부스의 순발력도 굉장히 중요했으며 서너 수비수들을 따돌린 채 상대 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골대 구석으로 공을 찔러넣은 도밍구스의 침착함도 상당히 로련했다.

공격선이 활발하게 가동되며 연변팀은 후반전이 시작되어 짧은 시간 안에 발빠르게 따라붙었고 제자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이에 불산팀도 교체 카드를 빼들며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분위기가 살아난 연변팀은 경기의 흐름을 우리 쪽으로 가져왔다.

64분에 연변팀은 리세빈을 빼고 허문광을 출전시키며 두번째 교체 카드를 활용했다. 연변팀의 슈팅이 상대의 2배에 달하며 우

세가 명확했다. 연변팀의 공세에 불산팀은 수비벽을 쳤고 75분경에는 동시에 3장의 교체 카드를 쓰는 등 반격을 꾀하려 했다.

분위기 반전을 넘어 추가 득점이 필요했던 연변팀도 80분경에 음바와 리강으로 황진비와 김태연을 교체했다. 3명의 외국인 선수가 전부 경기장을 누비며 막판 스피드에 돌입했다.

연변팀은 상대의 역습을 방지하는 한편 공격에 집중했다. 절대적인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85분경 오른쪽 측면에서 질주하던 허문광이 작은 각도에서 슈팅을 때렸고 공은 아슬히 골대를 스치며 흘러지나갔다.

경기 막판에 접어들어 나온 좋은 기회였던 지라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이 5분 주어졌고 연변팀은 마지막까지 반코트 경기를 주도했으나 기다리던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불산팀은 경기 종료를 몇초 남겨두고 교체 카드를 쓰는 등 무승부에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최종 결과는 2대2로 두 팀은 근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후 펼쳐진 경기에서 각각 승점 1점씩 나눠가졌다.

원정에서 승점을 챙긴 연변팀은 6월 22일 홈에서 광서평과팀과 맞붙는다.

/ 글 김기혜기자 / 사진 연변룡정축구구락부

## 경기후

### 왕봉 : 가장 힘들었던 원정경기, 3점 못 따내 미안할 따름

경기를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연변팀의 주장 왕봉이 취재를 받았다.

"오늘 팀의 경기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왕봉은 "오늘 원정에서 매우 쉽지 않은 승점 1점을 따냈다. 이번 원정은 우리가 경기를 했던 중 가장 힘들었던 원정경기였다. 이번 원정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연신 말했다. 확실히 이날 경기는 고온에 비까지 겹치면서 선수들의 체력에 대한 요구가 상승했다.

이어 왕봉은 "승점 1점 밖에 못 가져왔는데 3점을 쟁취하지 못해 우리 축구팬들에게 미안하다. 돌아가서 잘 총화하겠다."며 미안함과 함께 다음 경기를 기약했다.

그러나 이날 연변팀은 비겼지만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였고 승점 1점에 그쳤으나 "승리와도 같은 무승부"라는 팬들의 공정을 얻었다.

/ 김기혜기자

## 감독초대석

### "다음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14일, 불산남사와의 원정경기를 마친 후 있는 기자회견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기형 감독은 "매우 간고한 원정경기였다."고 운을 떼고 나서 "그러나 선수들이 끝까지 싸워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이번 원정은 로정이 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여전히 마지막까지 견지했다. 비록 2대2 무승부지만 우리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서 좀더 충분히 준비를 해 원정 우승을 쟁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미뤄진 시즌 첫 원정승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경기에서 활약을 펼친 선수들 중 한 명인 리홍은 "오늘은 정말 힘든 경기였지만, 팀이 승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기혜기자

## [포토 포커스]

### '황진비 - 포부스 - 도밍구스 합작'... 도밍구스 시즌 첫 골



6월 14일 오후 7시 30분에 불산남해체육중심경기장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불산남사팀(이하 '불산팀')과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소중한 원정 승점 1점을 쌓았다.

비록 무승부였지만 연변팀은 무승부 이상의 경기력과 집중력을 보여주었는데 두번이나 뒤떨어진 상황에서 악착같이 따라붙어 한번 또 한번 동점골을 만들었다.

특히 두번째 동점골은 황진비, 포부스,

도밍구스가 문전에서 짧고 빠른 패스를 통해 골로 련결시키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더불어 이 골은 3명 '이적생'의 합작으로 된 도밍구스의 시즌 첫 골이라 더욱 짜릿함을 선사했다.

/ 글 김기혜기자 / 사진 연변룡정축구구락부

## 전세계 명문 클럽 총출동 ... 프로축구 최강팀 가린다

### FIFA 클럽 월드컵 미국서 개막

21회를 맞이한 FIFA 클럽 월드컵이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개 클럽이 참가해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FIFA 클럽 월드컵은 지난 15일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알아흘리(에미)와 인터 마이애미(미국)의 A조 1차전으로 막을 올렸다. 랭팀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다. 결승전은 오는 7월 14일에 펼쳐질 예정이다.

클럽 월드컵은 2000년 대륙별 클럽 챔피언 8개 팀이 참가한 소규모 대회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6개 대륙을 대표하는 32개 클럽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성장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중미에서 각 4팀, 남미 6팀, 유럽 12팀, 대양주 1팀, 개최국 미국에서 1팀이 참가해 우승컵을 놓고 경쟁한다.

총상금 규모는 10억달러에 달하며 우승 상금은 4,000만달러이다. 우승팀은 최대 1억 2,500만달러를 획득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스파냐), 바이에른 뮌헨(독일), 파리 생제르맹(PSG, 프랑스),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이상 잉글랜드), 인터 밀란과 유벤투스(이상 이탈리아) 등 유럽의 명문 클럽들이 대거 참가한다. 남미에서는 파우메이라스, 플라멩구, 플루미넨시, 보타포구(이상 브라질), 리버 플



▲ 메시, 음바페, 홀란(오른쪽 우로부터) 등 세계 축구무대를 총횡무진하는 슈퍼스타들이 클럽 월드컵에서 기량을 겨룬다.

/ 신화사

레이트, 보카 주니어스(이상 아르헨티나)가 출전한다. 아시아에서는 울산 HD(한국)와 함께 우라와 레드(일본),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 알아인(아랍추장국련방)이 참가한다.

/ 외신종합